

##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분석

이상수 · 황순영\* · 송연주 · 이후희  
(부산대학교)

### Mediating Effect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ang-Soo LEE · Soon-Young HWANG<sup>†</sup> · Yeon-Joo SONG · Hoo-Hee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 among student's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and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was shown by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student's resilience is the variable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Therefore, it suggests to establish inter-organizational relation, ethical climate for active communication among school members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Organization, Mediating Effect

#### I. 서론

요즘 초등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2013년 한국 아동 및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5년 연속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의 비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초·중·고등

학생 중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rean Bang Jeong-hwan found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lab of Yeonsei University, 2013). 초등학생들은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조장된 경쟁심이나,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혹은 새로운 압력과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Kim Kyung-Suk, 2003; Kim Youn-Kyung & Chung Moon-Ja, 2008).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학생들은 신체적 또는 심리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71, special-hsy@pusan.ac.kr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877).

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중단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학교부적응의 심각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학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작은 사회로, 학교적응은 학생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적응(adaptation)이란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지적, 정의적,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의 모든 여건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Kim Yong-Rae, 2000).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성적이 향상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됨으로써 개인의 발달은 물론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Ahn Young-Bok, 1985).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되거나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부적절한 행동과 같은 특성들을 나타낸다(Baek Hye-Jeong, 2007). 초등학교에서부터 부적응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이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심각한 학교부적응 상태로 진전될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이차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Kim Yeong-Eun, 2008).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인 탄력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Song Young-Kyoung et al., 2011; Shin Hye-Jeong, 2008).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련

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Goo Ja-Eun, 2000; Park Sang-Hee, 2009; Song Mi-Ryoung & Lee Jae-Yeon, 2011),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e Ho-Sook, 2008).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패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학업수행을 보다 충실히 하여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Ho-Sook, 2008).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Park Sang-Hee(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 또한 Lim Youn-Jin & Lee Eun-Kyung(201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좋은 기분은 유지하고 좋지 않은 감정은 감소시키는 자기조절능력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수업적응,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학교친구적응 등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탄력성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문제해결전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융통성에 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으며(Goo Ja-Eun, 2000; Park Sang-Hee, 2009; Song Young-Kyoung et al., 2011, Chae Ho-Sook, 2008),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인 감정통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지고 있다(Lim Youn-Jin & Lee Eun-Kyung, 2010). 학교 조직 건강성 연구, 학교 부적응 및 적응 연구, 행복한 학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는 탄력성은 비전 수립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해결역량(Miles, 1969) 외에도 스트레스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Elias et al., 1997; Merrell & Gueldner,

2011) 및 개방성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을 갖는 긍정적 자아개념(Kim Soon-Hye, 2008; Kim Jong-beom, 2009; Park Eun-Min, 2010; Lee Kyeong-Sang, 2011; Chung Ha-Eun & Chun Jong-Serl, 2012)을 내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항상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력이 높아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량이며 (Merrell & Gueldner, 2011),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감과 모든 생활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Park Hee-Suk & Lee Seung-Eun, 2007; Pyon Bo-Ki & Kang Seok-Ki, 2002)를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탄력성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감정 통제적 측면 등을 중요하게 다루던 기존의 자아탄력성 개념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문제해결역량을 비롯하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 및 모든 생활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고, 이러한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탄력성의 세부요인들을 새롭게 검증해봄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탄력성은 개인 간 소통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조직(organization)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ostanza(2012)에 의하면 조직이란 체제의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발한 소통을 하는지에 따라 조직의 풍토는 물론 구성원들의 건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직 내에서의 관계가 건강할수록 구성원간의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개방적이고 진실하며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Hoy et al., 2002). 기존 연

구(Kim Soon-Hye, 2008; Park Eun-Min, 2010; Lee Ji-Mi & Kim Hyun-Ju, 2011; Ladd & Kochenderfer, 1996; Ladd et al., 1996; Marzano, 2000)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의 양 또는 관계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체계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각 개체들 간의 역동적인 소통 관계,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Werner와 Smith(1992)은 탄력성과 부모애착 및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30년 동안 중단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연구결과 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좋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나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력성이 발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낙관적이며 능동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 및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erman-Stahl & Petersen, 1996).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경우 긍정적 또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Lim Jung-Sook, 2006),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또래관계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r Jee-Youn, 2004). 이와 더불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친구관계의 질의 하위요소인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을 높게 지각한다고 나타냈다(Jang Myung-Hee, 2005).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의 탄력성 정도에 따라 조직 내에서의 관계나 소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학생들이 맺는 소통이나 관계를 조직으로 명명하여, 탄력성과 조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소통이 원활할수록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Ladd et

al., 1996). 뿐만 아니라, 학급 내의 안정적인 또래 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지지, 대인간 기술, 인정 등은 학교의 요구에 아동이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촉진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Ladd & Kochenderfer, 1996). Lim Soo-Kyoung과 Lee Hyong-Sil(2007)은 친구관계와 부모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하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또래관계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역시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Moon, Ehun-Shik & Kim, Choong-Hoe, 2002), Khu Bon-Yong(2012)은 부모관계, 교사관계,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탄력성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맺는 소통이나 관계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소통과 관계는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직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탄력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부모, 교사, 또래와 갖는 소통이나 관계를 증진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줌으로써 학교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조직,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나. 초등학생의 문제해결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다.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13개 초등학교를 무선표집 하여 5, 6학년 학생의 자료가 기초하였다. 설문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1,306명이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의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1,29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학교에는 학생용 설문지와 함께 검사의 구성 및 실시 절차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하였다. 교사가 사전에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하여 학생이 설문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학생(52.2%)이 여학생(47.8%)에 비해 더 많았고, 학년별 분포는 5학년(30.1%)에 비해 6학년(69.9%)이 더 많았다.

<Table 1> Distribution of analysis subject (N=1,295)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676	52.2
	Female	619	47.8
Grade	Elementary Grade 5	390	30.1
	Elementary Grade 6	905	69.9
Total		1,295	100

### 2. 측정도구

가. 탄력성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

해 Lee Sang-Soo et al.(2014)의 건강한 학교생태계 진단도구 중에서 탄력성만을 사용하였다. 탄력성은 사회정서역량, 문제해결역량, 긍정적 자아개념의 3개 하위척도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높은 수준이었다.

나.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Kim Ah-Young(2002)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하위척도로,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 조직

초등학생의 조직을 측정하기 위해 Lee Sang-Soo et al.(2014)의 건강한 학교생태계 진단도구 중에서 조직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인 소통과 긍정적 관계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높은 수준이었다.

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Cronbach's  $\alpha$ )는 .85로 높은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탄력성 및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역량, 문제해결능력 및 긍정적 자아개념이 조직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조직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초등학생의 탄력성, 조직, 학교적응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초등학생의 탄력성, 조직 및 학교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Foundation Stat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est Variable (N=1,295)

	Organization	Social emotional competence	Problem solving competence	Positive self-concept	Organization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					
Social emotional competence	.91***	-				
Problem solving competence	.91***	.74***	-			
Positive self-concept	.96***	.78***	.90***	-		
Organization	.72***	.69***	.62***	.68***	-	
School Adjustment	.74***	.68***	.66***	.70***	.75***	-
Mean	3.76	3.70	3.74	3.80	4.09	3.71
Standard Deviation	0.75	0.80	0.87	0.80	0.67	0.62

\*\*\*p<.001

위의 <Table 2>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탄력성 전체 평균은 3.76으로,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역량은 3.70, 문제해결역량은 3.74, 긍정적 자아개념은 3.80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문항의 점수가 1점에서 5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문제해결역량, 긍정적 자아개념 및 탄력성 전체의 평균은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조직 평균은 4.09로 나타났다. 조직 문항의 점수 역시 1점에서 5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의 조직 평균은 중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학교적응의 경우는 평균이 3.71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문항의 점수가 1점에서 6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초등학생의 평균은 중간 정도의 학교적응 수준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Table 2>에 나타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과, 탄력성은 하위요인인 사회적정서역량( $r=.91, p<.001$ ), 문제해결역량( $r=.91, p<.001$ ) 및 긍정적 자아개념( $r=.96, p<.001$ )과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조직( $r=.72, p<.001$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정서역량( $r=.69, p<.001$ ), 문제해결역량( $r=.62, p<.001$ ) 및 긍정적 자아개념( $r=.68, p<.001$ ) 역시 조직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사회적정서역량, 문제해결역량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탄력성 전체는 조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r=.74, p<.001$ ).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정서역량( $r=.68, p<.001$ ), 문제해결역량( $r=.66, p<.001$ ) 및 긍정적 자아개념( $r=.70, p<.001$ ) 역시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탄력성은 학교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과 학교적응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

타나( $r=.75, p<.001$ ), 조직과 학교적응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 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탄력성과 조직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단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정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동시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게 된다. 4단계에서 가정된 매개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 효과의 유의미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 것이며,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Table 3> Effect of Resilience and Organization on Adjusting to school (N=1,295)

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Step 1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74	.02	.61	38.75***	.54	1501.18***
Step 2 Resilience	Organization	.72	.17	.65	37.41***	.52	1399.28***
Step 3 Resilience Organization	School Adjustment	.41 .46	.02 .02	.34 .42	16.82*** 18.82***	.64	1134.86***

\*\*\*p<.001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탄력성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61$ ,  $p<.001$ ), 탄력성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65$ ,  $p<.001$ ). 그리고 매개변인인 조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46$ ,  $p<.001$ ),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beta=.61$ )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 $\beta=.34$ ). 따라서 조직은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단독으로 학교적응에 대해 54%의 설명변량을 가졌으나 조직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64%의 설명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 공식에 의하면,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때,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1982) 검증을 통해 산출된 값이 유의한 값을 가진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3.76$ ,  $p<.001$ ). 따라서 초

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사회정서역량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53$ ,  $p<.001$ ), 사회정서역량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70$ ,  $p<.001$ ). 그리고 매개변인인 조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50$ ,  $p<.001$ ), 사회정서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beta=.53$ )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 $\beta=.24$ ). 따라서 조직은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역량은 단독으로 학교적응에 대해 46%의 설명변량을 가졌으나 조직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61%의 설명력을 보였다.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20.34$ ,  $p<.001$ ).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학교

<Table 4> Effect of emotion capability of society on adjusting to school whil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 (N=1,295)

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Step 1							
Social emotion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68	.02	.53	32.99***	.46	1088.36***
Step 2							
Social emotional competence	Organization	.75	.02	.70	40.40***	.56	1632.16***
Step 3							
Social emotion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31	.02	.24	12.95***		
Organization	Organization	.54	.02	.50	22.38***	.61	1007.51***

\*\*\*p<.001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초등학생의 문제해결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문제해결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문

제해결역량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47, p<.001$ ), 문제해결역량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48, p<.001$ ). 그리고 매개변인인 조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51, p<.001$ ),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beta=.47$ )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 $\beta=.23$ ). 따라서 조직은 초등학생의 문제해결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역량은 단독으로 학교적응에 대해 43%의 설명

<Table 5> Effect of Problem Solving Competence on adjusting to school whil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 (N=1,295)

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Step 1							
Problem solving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66	.02	.47	31.27***	.43	977.57***
Step 2							
Problem solving competence	Organization	.62	.02	.48	28.47***	.38	810.48***
Step 3							
Problem solving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32	.02	.23	14.44***		
Organization	Organization	.55	.02	.51	25.29***	.62	1051.92***

\*\*\*p<.001



<Table 6> Effect of Positive Self-concept on adjusting to school whil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 (N=1,295)

Prediction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Step 1 Positive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70	.02	.54	34.81***	.49	1211.37***
Step 2 Positive self-concept	Organization	.68	.02	.57	33.02***	.46	1090.39***
Step 3 Positive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35	.02	.28	15.29***	.63	1077.74***
Organization		.51	.02	.48	22.05***		

\*\*\*p<.001

변량을 가졌으나 조직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62%의 설명력을 보였다.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17.47, p<.001$ ). 따라서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 매개효과 분석절차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긍정적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eta=.54, p<.001$ ), 긍정적 자아개념이 매개변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57, p<.001$ ). 그리고 매개변인인 조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beta=.48, p<.001$ ), 긍정적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beta=.54$ )

에서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었다( $\beta=.28$ ). 따라서 조직은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단독으로 학교적응에 대해 49%의 설명변량을 가졌으나 조직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63%의 설명력을 보였다.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18.36, p<.001$ ). 따라서 초등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소통과 관계)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 속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탄력성과 학교적응, 조직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Goo Ja-Eun, 2000; Park Sang-Hee, 2009; Song Mi-Ryoung & Lee Jae-Yeon, 2011)과 탄력성과 조직(소통과 관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Lim Jung-Sook, 2006; Jang Myung-Hee, 2005; Hur Jee-Youn, 2004; Herman-Stahl, Petersen, 1996; Hoy et al., 2002; Werner & Smith, 1992)을 지지한다. 또한 조직과 학교 적응 간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Khu Bon-Yong, 2012; Moon Ehun-Shik & Kim Choong-Hoe, 2002; Lim Soo-Kyoung & Lee Hyong-Sil, 2007; Ladd & Kochenderfer, 1996; Ladd et al., 1996)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탄력성과 학교적응, 조직 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력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심리변인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소통과 관계를 잘 맺는 조직 내 관계 능력이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탄력성이 조직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조직은 탄력성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학교적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탄력성이 조직으로 이어지고, 조직이 또 다시 원인이 되어 학교적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좋은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Werner와 Smith(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낙관적이며 능동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 및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Herman-Stahl & Petersen, 1996)를 지지한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Ladd et al., 1996), 학급 내

의 안정적인 또래관계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지지, 대인간 기술, 인정 등은 학교의 요구에 아동이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촉진시켜 준다는 연구결과(Ladd & Kochenderfer, 1996)와도 일치한다.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Moon Ehun-Shik & Kim Choong-Hoe, 2002), 부모관계, 교사관계,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hu Bon-Yong, 2012; Block & Kremen, 1996)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의 탄력성 정도에 따라 관계나 소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탄력성을 가진 학생은 학교 구성원들과 소속감과 연대감을 공유하고 신뢰감과 책임감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는 반면, 낮은 탄력성을 가진 학생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킬 힘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이 더 심할 수 있다. 학교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 친밀한 관계는 학생으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협력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구성원들 간의 조직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탄력성은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학교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소통과 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탄력성과 환경적 상호작용인 조직이라는 변인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탄력성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직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문제해결역량 및 긍정적 자아개념은 각각 조직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Elias et al., 1997; Merrell & Gueldner, 2011), 비전 수립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해결역량(Miles, 1969), 개방성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을 갖는 긍정적 자아개념(Kim Soon-Hye, 2008; Kim Jong-beom, 2009; Park Eun-Min, 2010; Lee Kyeong-Sang, 2011; Chung Ha-Eun & Chun Jong-Serl, 2012)이 중요한 탄력성 관련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변화하거나 혹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이 학교 구성원들 간이나 학생과 부모 간의 소통이나 관계 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 및 탄력성의 세 하위요인 각각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수업적응,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Lim Youn-Jin & Lee Eun-Kyung, 2010), 통제성과 회복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결과(Shin Hye-Jung, 2013)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성이 높으면 외부 환경이 주는 유혹이나 외부 사건으로 인해 감정에 기복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면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에서 회복이 빠를 것이며, 새로운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어 여러 상황이 복합적

으로 일어나는 학교라는 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적응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갖추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길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학생의 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학생의 주변에 있는 친구, 교사, 부모, 가족들과의 긍정적인 소통과 관계가 더해질 경우 학교적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ostanza(2012)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원간의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개방적이고 진실하며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가질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학교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교적응에 대한 주요 변인인 탄력성과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관계 능력의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여 줌으로써 건강한 학교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의 학교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학생 개인의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 또래 및 학부모 간 소통과 상호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등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간의 소통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는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생 개인의 신체적 문제, 질병 등으로 학급 내에서 낙인효과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의 학교풍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나 가

족들과 원만한 소통 및 관계를 가지도록 돕기 위해 부모교육이나 부모훈련, 부모상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탄력성 및 소통이나 관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개인 및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는 대상 학교를 전국적으로 무선표집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폭넓게 일반화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표집 또는 의도적 목적표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탄력성을 새롭게 개념화하고, 소통과 관계를 포함한 조직이라는 개념에서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탄력성을 길러줌과 동시에, 교사나 또래, 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References

- Ahn, Young-Bok(1985). The Characteristics of Adjustment and Behavior and their Relative Variables, Dankook University master thesis.
- Baek, Hye-Jeong(2007).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2), 357~373.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hae, Ho-Sook(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 Chung, Ha-Eun & Chun, Jong-Serl(2012). Risk Factor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by School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195~212.
- Costanza, R.(2012). Ecosystem health and ecological engineering. Ecological Engineering, 45, 24~29.
- Elias, M. J. · Zins, J. E. · Weissberg, R. P. · Frey, K. S. · Greenberg, M. T. · Haynes, N. M. · Kessler, R. · Schwab-Stone, M. E. & Shiver, T. P.(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Goo, Ja-Eun(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School Life,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 Herman-Stahl, M. & Petersen, A. C.(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59-665.
- Hoy, W. K. · Smith, P. A. & Sweetland, S. R.(2002).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al climate index for high schools: Its measure and relationship to faculty trust. High School Journal, 86, 38~49.
- Hur, Jee-Youn(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Resilience, Peer Relat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 Jang, Myung-Hee(200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Ego-Resilience and Friendship Quality.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thesis.
- Khu, Bon-Yong(2012). The Mediation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Parent, Teacher, and Peer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School,

-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3), 347-373.
- Kim, Ah-Young(2002).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5(1), 157~184.
- Kim, Jong-beom(2009).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6(2), 25-48.
- Kim, Kyung-Suk(2003).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ntrollability and Coping Behavior, *Hongik University* doctorate thesis.
- Kim, Soon-Hye(2008). A Study on School Violence Variables, *Educational Research*, 27(2), 67-85.
- Kim, Yeong-Eun(2008).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the School Adjustment Test for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7(1), 165~181.
- Kim, Yong-Rae(2000). *Education Psychology*. Seoul: Moonumsa.
- Kim, Youn-Kyung & Chung, Moon-Ja(2008).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Stress Coping Behaviors in Victims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8), 1~11.
- Korean Bang Jeong-hwan found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lab of Yeonsei University(2013). 2013 Korean Child-youth Happiness Rate. *International Comparison Research Report*.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0). 2010 Education Statistics Analysis Kit.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add, G. W. & Kochenderfer, B. J.(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22~3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e, Ji-Mi & Kim, Hyun-Ju(2011).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Child,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4), 97~120.
- Lee, Kyeong-Sang(2011).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Longitudinal Individual Changes in Adolescents' School Maladjustment Over Tim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131~155.
- Lee, Sang-Soo·Kim, Dae-Hyun·Lee, Yu-Na & Hwang, Soon-Young(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iagnosis tool for healthy school ecosystems,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2), 249~266.
- Lim, Jung-Sook(2006).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Verbal Control Patterns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Ego-Resiliency and Peer Relationship, *Kyungnam University* master thesis.
- Lim, Soo-Kyoung & Lee, Hyong-Sil(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 Lim, Youn-Jin & Lee, Eun-Kyung(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ild Sex,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2), 285~294.
- Marzano, R. J.(2000). *A new area of school reform going where the research takes us*. Aurora, CO: Mid-continent Research for Education and Learning.
- Merrell, K. M. & Gueldner, B. A.(2011).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 Miles, M.(1969). Planned Change and Organizational Health: Figure and ground, In F. Carver,& T. Sergiovanni (Eds.), *Organization and Human Behavior: Focus on Schools* (pp.375~391). NY: McGraw-Hill.
- Moon, Ehun-Shik & Kim, Choong-Hoe(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19~241.
- Park, Eun-Min(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Park, Hee-Suk & Lee, Seung-Eun(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elf-Esteem

-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6), 337~356.
- Park, Sang-Hee(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Resilience,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6(2), 59~81.
- Pyon, Bo-Ki & Kang, Seok-Ki(2002). A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Host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269~291.
- Shin, Hye-Jeong(2008). The Effect of Ego-resilience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ix grader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 Shin, Hye-Jung(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Empathy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Dankook University master thesis.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ng, Mi-Ryoung & Lee, Jae-Yeon(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Neglect and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29, 219~244.
- Song, Young-Kyoung · Kim, Yeong-Hee & Hwang, Seong-Sil(2011).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1), 1~19.
- Werner, E. E. & Smith, R. S.(1992). Overcoming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 논문접수일 : 2014년 08월 0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9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4일